

## 2024 상반기 북한 동향과 향후 정책 전망

박형중(통일연구원)

이 글은 8기 10차 전원회의(2024.6.28.-7.1) 결과에 관한 북한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면서, 분야별로 2024 상반기 북한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순서는 먼저 대내정책, 그리고 대외정책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 대내정책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동향은 그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추세의 핵심은 당-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장악 강화와 주민 통제 강화이다. 8기 10차 전원회의 토론 의제도 이러한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맥락에서 설정되어 있다.

물론 2024년도 상반기에 특이한 동향도 있었다. 먼저 김일성 및 김정일과 대비한 김정은의 독자 위상 강화이다. 그러한 동향의 일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즉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태양절’이 아니라 ‘4월 명절’로 격하하고, 마르크스-레닌과 김정은 초상을 나란히 걸었고, 특히 이번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김정은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상으로 2024년도 특이 동향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거창한 지방발전 계획’이 민수분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군수중공업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경제정책 핵심의제로 설정된 것은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2024.1.15.) 시정연설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불과 보름 전에 열렸던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대내 경제정책 의제들에는 ‘거창한 지방발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핵심 의제는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뿐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24/12/31).

---

그간 북한의 공식 매체 보도, 그리고 이번 8기 10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에 관해서만 전적으로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발전 정책'의 실행 보장을 위해 북한은 조직지도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8기 19차 정치국 확대회의(1.23-24)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김정은은 지방발전에 인민군대를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로동신문〉 2024/1/25).

반면 군수공업 발전에 관한 구체 동향은 북한 매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김정은 현지도 관련 보도를 근거로 추론만 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김정은은 총 6차례, 그리고 8기 10차 전원회의 개최 직후(7.2), 군수공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2024년 1월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국가가 군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로동신문〉 2024/1/16). 이 원칙은 과거 '선군경제노선'을 연상시킨다. 아울러 이 원칙은 앞서 언급한 '지방발전' 노선과도 충돌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안보와 관련된 상반기 동향을 보자. 이번 8기 10차 전원회의 결과보고는 대외안보 문제와 관련 단지 짧은 문장 하나만 언급하고 있다. 즉 김정은이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하여 밝혔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24/1/16). 이는 특이하다. 그 이유는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안보 동향을 보면, 북한에게 자화자찬조의 거들먹거리는 발언거리가 충분히 넘쳐났을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2023년 말 2024년 초 북한은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간 관계'로 재설정했었는데(〈로동신문〉 2024/1/16), 8기 10차 전원회의가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과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둘째, 2024년도 상반기 김정은의 최대 관심은 군사분야였다. 김정은 공개 활동은 총 53건이었는데, 그중 27건이 군사력 및 군수생산의 강화와 관련되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했다. 셋째, 6.19 푸틴의 평양방문 및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북한의 대외안보 입지를 상당히 강화시켰다.

다음으로, 이 글은 2024 상반기 북한의 대외 동향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전망한다. 우선 상반기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자. 2023년 말 2024년 초 북한이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국인 국가들간의 교전관계'로 재설정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 언사는 한미의 안보 우려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2024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 증가하리라 예측했다. 한미에서는 '북한이 전쟁결심을 했는가'

---

가 논쟁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6월 오물 풍선 사건을 제외하고 상반기 남북관계는 일단 대체로 평온했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상반기는 북한에 대남 전열 재정비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새롭게 제시된 남북 '교전국가'론에 따라 대남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남 조직을 재편하며, 각 조직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준비를 갖추게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 둘째, 6월 푸틴 방문을 앞두고, 북한은 자신이 주도하여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북한은 상반기 동안 한미를 추가로 자극하는 것을 회피했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북한의 대남 공격 성향이 강화될 수도 있다. 전열 정비를 끝낸 북한 대남 기구들은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한 북한의 새로운 입지는 능력과 대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에 호조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일련의 복잡한 요소들, 즉 불확실성, 제약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첫째, 무엇보다 한미일의 결속 그리고 대응 능력과 준비는 크게 강화되어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호전성 강화 및 러북 협력 강화가 자신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얼마만큼의 군사-기술 차원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넷째, 차기 미국 대선 결과 역시 북한에게도 중대한 불확실성이다.

앞서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대외 및 안보 문제에 관해서 오직 한 개의 문장으로만 언급했다고 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아직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 위기 유발을 통해 안보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자 시도해왔다. 현재 북한의 당면 목표는 한미일과 중국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견고하지 않은 반북 연합을 파괴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을 북한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과감하고 위협감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동북아 교착 상태는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생존환경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계산에서 북한은 앞으로 상당 기간 무모하게 보이는 위기 유발 강경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 목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상대 진영 내부 분열이다. 북한이 볼 때,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 내부 정치의 분열일 것이다.

---

## 참고문헌

〈로동신문〉. 2024.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1월 16일.

<http://rodong.rep.kp/ko/index.php?MTVAMjAyNC0wMS0xNi1OMDAxQA>.

\_\_\_\_\_. 2024. “조선로동당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월 25일.

<http://www.rodong.rep.kp/ko/index.php?OEAYMDI0LTAxLTI1LU4wMDFAMUBAQDFAM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외무성’). 20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1월 16일.

<http://www.mfa.gov.kp/view/article/19216>.

\_\_\_\_\_. 20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7월 2일.

<http://www.mfa.gov.kp/view/article/20542>.

〈조선중앙통신〉. 2023.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김정은총비서 참석.” 12월 31일. <http://www.kcna.co.jp/calendar/2023/12/12-31/2023-1231-001.html>.

---

■ 저자: 박형중\_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7월 9일  
"2024 상반기 북한 동향과 향후 정책 전망"  
979-11-6617-778-1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